

TDB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7년 12월 조사 -

2018년 1월 12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 전용HP http://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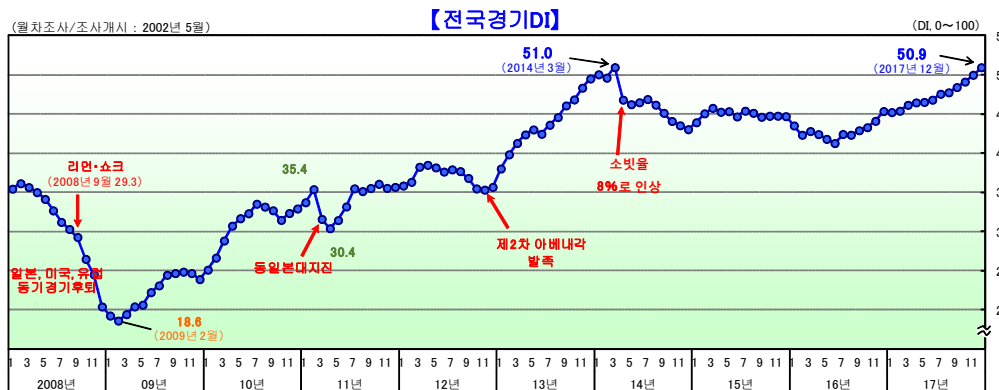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과거최고를 갱신

~ 경기 DI 는 50.9, 7 개월 연속 개선 ~

(조사대상 2 만 3,113 사, 유효회답 1 만 168 사, 회답율 44.0%, 조사개시 2002 년 5 월)

조사결과 포인트

1. 2017년 1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50.9로 2002년에 조사를 개시한 이후 과거최고치였던 2014년 3월의 51.0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제조업의 호조에 연말수요도 가세하면서 체감경기 개선이 업계·규모 간에 확산되는 등 국내경기가 확대되었다. 향후에는 국내외 기업세계개혁 등이 기여할 것이며, 수출과 설비투자 등 기업부문의 영향으로 확대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개선되었으며 『금융』이 악화되었다. 『제조』는 기계제조나 화학품제조 등 4개 업종이 과거최고로 나타났으며 3개월 연속으로 최고수준을 갱신하였다. 또한 『운수·창고』 『서비스』도 최고로 나타났다. 『도매』는 과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말수요 등이 기여하여 개인소비관련 업종도 회복되었다.
3. 『호쿠리쿠』 『토카이』 『킨키』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되었으며 『홋카이도』가 악화되었다. 호조인 자동차와 공작기계생산, 인바운드수요 등을 배경으로 3개 지역이 과거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의 체감경기가 과거최고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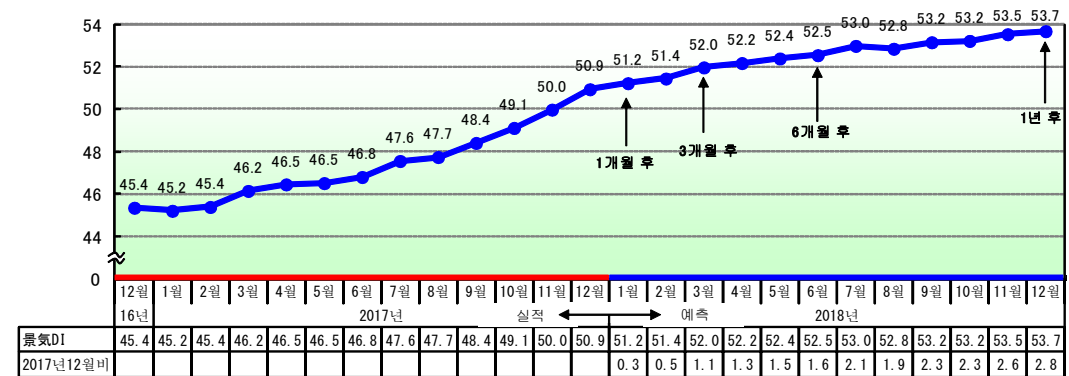
< 2017년 12월의 동향 : 확대 >

2017년 1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50.9로 7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2017년에는 2월 이후, 5월의 보합세였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개선되었다.

12월의 국내경기는 중국 등의 왕성한 해외수요와 환시세의 안정을 배경으로 수출증가가 지속되어 기계 등 제조업의 호조가 계속되었다. 업계 별로 『제조』 『운수·창고』 『서비스』,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과거최고를 갱신하는 등 연말수요와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체감경기의 개선이 제조업으로부터 다른 업계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모양세를 보여 경기DI는 과거최고(2014년 3월, 51.0)에 달하는 수준까지 상향되었다. 연료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은 부담요인이지만 제조업의 호조에 연말수요가 가세하여 체감경기의 개선은 업계·규모간에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확대되었다.

< 향후전망 : 확대기조로 추이 >

향후의 국내경기는 수출 및 생산확대의 지속으로 인하여 증가된 기업수익과 성력화(省力化)수요를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가 견조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비는 호조인 고용환경 등으로 인하여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대형감세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촉구하는 2018년도 세제개정은 경기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과반수가 정사원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회답하는 등 인력부족의 심각화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어느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국내외 기업세계개혁도 기여할 것이며, 수출과 설비투자 등 기업부문의 영향으로 확대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